

수능 문해력, 청년 취업까지 결정한다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10대 시절 치렀던 수능의 문제 풀이 방식으로 다시 평가받는 현상이 심각하다. 대기업 인적성과 공무원 적성검사, 로스쿨 시험에 이르기까지 필기시험의 핵심은 수능 국어의 비문학 독해와 수학의 수리 추론 구조를 복제하고 있다. 이러한 동질성은 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제공하지만 확장 시절 수능형 지문 독해 훈련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취업 시장에서 또 다른 진입 장벽을 만든다.

수능 국어 및 수학 시험과 성인 적성시험은 짧은 시간 내에 복잡한 정보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역량을 평가한다는 본질을 공유한다. 수능 국어 독서는 공기업의 의사소통 능력, 공무원 적성검사 언어논리, 로스쿨 시험 언어이해와 연결되어 전제 추론과 사례 적용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수능 수학 역시 조건 해석과 최적해 도출 역량을 묻는 수리 영역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식은 출제 인력풀의 구조적

통합에서 기인한다. 성인 적성시험을 출제하는 인력은 수능을 출제하는 국문학, 논리학, 수학교육과 교수진 및 연구원 집단과 동일하다. 출제 위원들이 공유하는 평가 기준이 같아 지문 구성과 오답 설계 방식이 습관적으로 복제된다.

수능 국어의 법률 및 경제 지문 문제와 대기업의 규정 해석 문제는 동일한 논리적 알고리즘을 공유한다. 수능 지문이 개념을 제시하고 예외 조건을 통해 책임 여부를 묻는 구조라면, 공기업 지문 역시 보상금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예외 조항을 설정한 뒤 현장 사례에 적용하도록 만든다. 수능에서 비문학 독해 훈련이 체화된 응시자는 이를 익숙한 구조적 도식으로 인지하여 순식간에 답을 찾아낸다.

수리 추론 영역도 마찬가지다. 수능 수학에서 제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불량품 예상 개수를 구하게 하는 문항은 성인 적성시험에서 공장 부품 불량률과 비용 데이터를 주고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게 하는 문항으로 변형된다. 제시된 데이터에서 조건 변수를 식별하고 수식화하여 이익과 손해를 산출하는 조건 가공 능력이 성인 시험 수리 영역의 정답률을 직접 결정한다.

시험 간의 지나친 동질성은 실제 채용 현장의 통계 데이터와 맞물려 청년 노동시장에 심각한 구조적 왜곡을 야기한다. 실제로 공

기업 수험생 대상 설문 결과 응시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적성시험 준비를 위해 수능 국어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고 답했다.

수능 점수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사교육 접근성 등 성장 환경의 문해력 노출 정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런데 직업 적성 평가마저 수능과 동일한 논리 메커니즘을 채택함으로써 10대 시절의 계층적 환경적 격차가 20대 후반의 청년 취업 시장으로 그대로 이전되고 확대되어 청년 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한다.

수능형 적성시험이 객관적이고 채용 비리를 막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검증 수단이라는 옹호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공정성의 탈을 쓴 행정 편의주의적 정당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문 독해형 문항을 줄이고 실제 업무 현장의 갈등 상황이나 우선순위 설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비지문형 상황판단검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단판 승부식 필기시험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실제 직무 데이터 기반 기획서 작성이나 데이터 가공 능력을 평가하는 실무형 평가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18세의 문해력 측정 시험이 28세의 직업 선택권까지 좌우하는 사회를 벗어나 취업 전선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직무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채용 평가 제도의 수술이 시급하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숫자 너머를 봐야 할 때



기 지 수 첩
차 현 정
(산업부)

‘역대 최대.’ 올해 반도체 업계를 관통하는 단어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 역시 매출 79조3187억원,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으로 또 한 번 분기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놓는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다. 차세대 HBM 개발과 생산능력 확대, 첨단 패키징 투자,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가 빠지지 않는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후 진행된 킨퍼런스콜에서 HBM4 양산 확대와 장기공급계약(LTA), 신규 생산시설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는 AI 시대 반도체 시장의 경쟁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메모리 시장은 수요가 늘면 생산을 확대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사이클이 반복됐다. 하지만 AI 메모리는 단순히 생산량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고객사와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품질 인증을 거쳐 양산 체제를 안정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신규 팹과 첨단 패키징 시설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AI 시장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차세대 AI 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 반도체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메모리 업체들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

고 있다. 이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보다 ‘언제 공급할 수 있느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은 단순한 호황의 결과가 아니다. 차세대 생산기술과 첨단 공정, 패키징 기술에 다시 투자해야 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다.

AI 시대에는 돈만 있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결국 그 돈을 얼마나 빠르게 기술과 생산능력으로 연결하느냐가 다음 승부를 결정한다.

사상 최대 실적은 분명 축하할 만한 성과다. 다만 AI 반도체 시대의 진짜 경쟁은 실적 발표가 끝난 뒤부터 시작된다. 가장 많은 돈을 번 기업보다 가장 빠르게 미래를 준비한 기업이 다음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hyeon@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0일 (음 6월 1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행동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60년생 일마다 장애가 많습니다. 72년생 주위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니 가슴만 아픕니다. 84년생 오랜 친구가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49년생 가까운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61년생 전화위복을 제대로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73년생 돈과 시간만 아깝게 낭비합니다. 85년생 사비하지 말고 먼저 화해하세요.



50년생 체력 관리에 더욱 힘쓸 때입니다. 62년생 소망이 지나치게 원대합니다. 74년생 별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됩니다. 86년생 욕심을 조금 줄이면 만사형통입니다.



51년생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고 보강함이 선행합니다. 63년생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마세요. 75년생 과감하게 추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87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52년생 달빛이 하늘에 환하니 하늘과 땅이 모두 환합니다. 64년생 동남방이 좋은 길입니다. 76년생 금전적으로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8년생 바라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53년생 이제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5년생 멀리 떠나는 여행이나 출장은 잠시 미루세요. 77년생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89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4년생 내일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66년생 좋은 사람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78년생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90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55년생 희망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67년생 아랫사람을 세심히 챙겨주세요. 79년생 이성과 즐거운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91년생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56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다음 기회를 차분히 기다려 보세요. 80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다소 곤란합니다. 92년생 주변의 말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57년생 많은 이들과 즐겁게 어울리세요. 69년생 방향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81년생 사업의 흐름이 서서히 바뀔 시기입니다. 93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겠습니다.



58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70년생 주변의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82년생 철저히 준비하여 신중히 임하세요. 94년생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세요. 71년생 따질 만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화해하세요. 83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95년생 진로 문제로 다소 갈등이 있겠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삶의 지식 명리학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더 잘 살아가고 싶어 하며 그 방법으로 지식을 쌓는다. 어떤 사람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을 배우며,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 삶을 성장시키려 한다. 사람의 삶을 성장시키는 지식 중에는 명리학도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명리학을 점을 치거나 미래를 맞히는 학문으로 생각한다. 물론 운의 흐름을 살펴보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명리학의 본질은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며, 각자의 성향과 특성을 분석하는 지혜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명리학이 수만 년 동안 축적한 인간 관찰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향과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누군가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누군가는 신중하고 차분하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명리학은 이러한 개개인의 차이를 음양오행이라는 틀을 통해 설명한다. 사람마다 태어난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운의 구조를 가지며, 그 기운이 성격과 행동,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는 마치 현대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 인간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심리학처럼 역시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사람의 특성을 이해한다. 명리학은 개인의 삶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그것을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채우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명리학은 어떤 성향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는다. 자기의 성향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삶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인 경우가 있다. 지식을 쌓는 것은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합형스도쿠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3				9
	5		6				
3		9					6
6			8		7		
			6	5			
		3		1			6
	8				4		7
				5		3	
2				4		1	8

1		5	8				4
			5				
	9		2			6	
			7				8 2
	7						3
6	2		5				
		3		4			7
					5		
	5			6	4		8

8	1	9	7	6	2	9	8	2
2	8	6	8	9	1	7	9	2
2	9	7	9	8	2	1	8	6
9	8	2	2	1	7	8	6	9
8	6	1	9	2	9	8	2	7
9	7	2	8	8	6	2	1	9
1	9	8	2	2	9	6	7	8
7	2	8	6	9	8	2	9	1
6	2	9	1	7	8	9	2	8

8	2	7	9	6	8	1	9	2
6	9	8	9	1	2	2	8	7
9	2	1	8	7	2	8	9	6
7	1	2	8	9	6	8	2	9
9	8	6	2	8	1	7	2	9
2	8	9	7	2	9	6	1	8
8	9	9	1	2	7	2	6	8
1	6	8	2	8	9	7	2	9
2	7	2	6	9	8	9	8	1